

---

저자 (Authors)	杜銀球
출처 (Source)	<a href="#">아시아강원민속 7,8</a> , 1990.9, 9-24 (16 pages) <a href="#">The Asia Gangwon Folklore 7,8</a> , 1990.9, 9-24 (16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아시아강원민속학회</a> The Society for Asia Gangwon Folkart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51614">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51614</a>
APA Style	杜銀球 (1990). 萬波息笛考. 아시아강원민속, 7,8, 9-2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3 11:33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萬波息笛 考

杜 銀 球\*

## <目 次>

- I. 서 언
- II. 萬波息笛의 내용과 사실성
- III. 萬波息笛의 의미성
- IV. 결 언

## I. 서 언

萬波息笛은 신라의 설화중에서 당대의 시대욕구가 짙게 투영되어 있는 작품이다. 설화가 소설보다 훨씬 가공적이며 환상적 비현실성을 지니는 것은 시대의식의 욕구가 강렬하게 투영되기 때문인데 만파식적의 경우도 상당한 비사실적 상황속에서 설화적 흥미가 증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신화 전설 설화에 있어 비현실성은 오히려 그 특색이 되며, 사실성이 경시되어 있지만 그 사실성을 검토해 보는 것도 그 작품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그것은 사실과 상치된 작품의 전개속에서 그 작품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本稿에서는 萬波息笛설화의 내용과 역사적 사실을 검토하고 설화가 지향하는 의미성을 살피고자 한다. 또한 三國遺事에 기록된 설화의 내용과 최근까지 전승된 구전설화와의 차이점을 통해 설화에 투영된 시대의식의 면모를 살피는 가운데 설화의 전승에 있어 유사설화의 파생 양상을 보며, 지역적 특성이나 의

\* 관동대 강릉무형문화연구소장

식의 반영양상, 설화에 있어서의 發想에 따른 의식의 공통성도 고찰코자 한다.

그러면 만파식적을 내용부터 검토한 뒤 이를 중심으로 東海邊의 몇 설화와 연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 II. 萬波息笛의 내용과 사실성

三國遺事 卷第一과 卷第二에는 紀異를 수록했는데 紀異一에는 古朝鮮(王儉朝鮮) 이후 신라 29代 太宗武烈王때까지의 36개 項目이, 紀異二에는 30代 文武王이후 敬順王까지 그리고 扶餘 百濟 駕洛國에 관한 24개 項目이 있어 총 60 項目으로 되어 있는 바 萬波息笛은 卷第二의 紀異二에 두번째로 나온다.

이 설화는 神文王 자신이 주체가 되고 있다. 그는 31代 王으로 諱는 政明(혹은 明之), 字는 日愨(日炤)라 했으며 文武王의 長子로 母는 慈儀(義)였다. 文武王 5년인 665년에 太子로 책봉되었는데 16년 후인 681년(開耀 1年) 7월 1일 文武王이 승하하자 7일째 되는 7월 7일에 卽位하여 691년 7월에 승하였다.

그런데 卽位한지 겨우 한달만인 8월 8일에 謀叛이 일어났다. 왕은 태자때 蘇判 金欽突의 女를 妃로 맞았으나 無子였는데 金欽突, 興元, 眞功이 모반하자 伏誅하면서 妃도 出宮시켰다. 그런데 16일에 내린 왕의 敎書를 보면 건고한 王權의 확립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賞有功者 往聖之良規 誅有罪者 先王之令典 寡人以眇躬涼德 嗣守崇基 廢食忘餐 晨興晏寢 庶與股肱 共寧邦家 豈圖繚經之內 亂起京城 賊首欽突興元眞功等 位非才進 職實恩升 不能克慎始終 保全富貴 而乃不仁不義 作福作威 侮慢官寮 欺凌上下 比日 逞其無厭之志 肆其暴虐之心 招納凶邪 交結近豎 禍通內外 同惡相資 剋日定期 欲行亂逆 寡人上賴天地之祐 下蒙宗廟之靈 欽突等 惡積罪盈 所謀發露 此乃人神之所共棄 覆載之所不容 犯義傷風 莫斯爲甚<sup>1)</sup>

註 1) 三國史記, 卷第八, 新羅本紀 第八, 神文王條.

有功者에겐 賞을, 有罪者는 誅하는 先王의 준엄한 법도를 상기시키고, 基業을 承守하려고 부심하는 자신을 도와 나라를 편안케 하기는 커녕 喪服中에 난을 일으킨 것을 개탄하면서 欽突등이 王恩에 대해 배은망덕함을 준열히 꾸짖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죄목으로 不仁不義한 威福, 官僚侮慢, 上下欺凌, 無厭과 暴惡한 마음으로 凶邪한 자를 불러들이고 近豎와 交結하여 亂逆을 행하려 했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統治기반의 강화를 노린 저의또한 개재되어 있다. 더구나 天地의 도움과 宗廟의 靈助로 죄상이 발각되었음과 人神이 共棄한 바요 天地에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宗廟의 절대적 靈助를 받고 있음을 강력히 암시하려 했다. 이는 文武王과 金庾信의 陰助에 대한 기대로 발전하게 되는 단서가 된다. 이러한 敎書를 통한 절대권력의 의지표명은 宗廟의 靈助라는 확신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叛徒와 軍官의 준엄한 治罪과정에서도 확인된다.

王 2년의 기록을 보면 正月의 親祀神宮, 4月の 置位和府令, 5月の 太白犯月, 6月の 立國學한 기록만 나와 있다. 그러나 三國遺事에는 이해에 感恩寺를 창건하고 萬波息笛을 얻게 된 경위가 소상히 기록되어 있으며 寺中記까지 소개하고 있다.

爲聖考文武大王 創感恩寺於東海邊 (寺中記云 文武王欲鎮倭兵 故始創此寺 未華而崩 爲海龍 其子神文立 開耀二年畢 排金堂砌下 東向開一穴 乃龍之入寺旋繞之備 蓋遺詔之葬骨處 名大王岩 寺名感恩寺 後見龍現形處 名利見臺<sup>2)</sup>

感恩寺 창건동기는 문무왕이 倭兵을 진압하려는데 있었으며 先王이 未畢한 것을 신문왕이 완성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文武王은 죽어서 海龍이 되었으므로 이 龍이 드나들도록 金堂階下에 穴을 뚫었으며 遺詔에 따라 骨을 藏한 곳이 大王岩이고 寺名은 감은사, 뒤에 龍의 現形을 본 곳을 利見臺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倭賊을 진압하고자 海龍이 되었다면 그 폐해가 심했을 것인데 이때 신라는 唐과 연합하여 武烈王 7년(660년)에 백제를, 文武王 8년(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 잔류세력을 소탕하는 기록은 많은나 왜구의 침범기록은 거의

2)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第二, 萬波息笛

보이지 않는다. 日人에 관한 기록을 굳이 찾는다면

仁師仁願及羅王金法敏 帥陸軍進 劉仁軌及別帥杜爽扶餘隆 帥水軍及糧船 自熊津  
江往百江 以會陸軍 同趨周留城 遇倭人白江口 四戰皆克 焚其舟四百艘 煙炎灼天 海  
水爲丹<sup>3)</sup>

仁師·仁願·文武王의 육군과 劉仁軌·杜爽·扶餘隆의 水軍이 熊津江에서 白江  
으로 가 합류하여 周留城으로 갔는데 白江入口에서 倭人을 만나 四戰皆勝하여  
四百隻을 불태웠다고 한 것이 倭人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다. 그렇다면 백제를  
도왔던 왜인의 출현이 매우 미미했던 것으로 보아 대대적 지원이 아니라 체면  
유지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니 이는 왕자 豊이 倭國에 人質로 가 있던  
중 나라가 멸망하자 귀국했기에 이를 도와준 의례적 행동이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武王從子福信嘗將兵 乃與浮屠道琛據周留城叛 迎古王子扶餘豊 嘗質於倭國者 立  
之爲王<sup>4)</sup>

백제가 항복한 뒤 武王의 조카 福信이 저항하면서 중 道琛과 주류성에서 같  
이 싸우다가 서로 갈등이 생기고 왜국에서 돌아와 왕이 된 豊과도 틈이 벌어졌  
는데 豊이 사신을 고구려와 왜국에 보내 군사를 청하자 체면상 파견되어 온 援  
軍이었던 것이다. 이런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문무왕이 왜적을 진압하기를 열망  
했던 것처럼 遺詔까지 내렸다고 본다면 수궁하기 어렵다.

萬波息笛에 대한 기록은 王 2년(682년) 5월로 되어있다. 그 내용을 사건의 전  
개상황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A) 明年壬午五月朔(一本云 天授元年 誤矣) 海官波珍噴朴夙清奏曰 東海中有小山  
浮來向感恩寺 隨波往來 王異之 命日官金春質(一作 春日) 占之曰 聖考今爲海龍 鎮  
護三韓 抑又金公庚信乃三十三天之一子 今降爲大臣 二聖同德 欲出守城之寶 若陛  
下行幸海邊 必得無價大寶

3) 三國史記, 卷第二十八, 百濟本紀 第六, 義慈王.

4) 上揭書.

설화에서 연대를 壬午년인 신문왕 2년(682년)이라 하면서 一本에는 天授元年(신문왕 10년, 690)이라 했으나 이는 잘못이라고 附記하고 있는데 내용을 검토해보면 오히려 신문왕 10년이 타당하다. 이는 王이 9년에 유일하게 月城郡에 幸行한 기록이 나오고 있고<sup>5)</sup> 또한 達句伐로 도읍을 옮기려 한 것이<sup>6)</sup> 五廟에 致祭한 사연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때 萬波息笛의 성립배경의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王의 현실적 고민은 7년 致祭의 祭文에 잘 드러나 있다.

七年…夏四月…遣大臣於朝廟 致祭曰 王某 稽首再拜 謹言太祖大王眞智大王文興大王太宗大王文武大王之靈…道喪君臨 義乖天鑒 怪成星象 火宿沈輝 戰戰慄慄 若墜淵谷…以順四時之候 無愆五事之徵 禾稼豐而疫穢消 衣食足而禮義備 表裏情諱 盜賊消亡 垂裕後昆 永膺多福 謹言<sup>7)</sup>

이 해 2월에 太子가 탄생했는데 날씨가 매우 험악했으므로 왕은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星象이 괴이하고 太陽(火宿)이 빛을 감추어 두려운 淵谷에 빠지는 것 같다는 심정의 토로대로 암울한 심정을 직계혈통인 太祖(昧鄒尼師今), 眞智王, 文興王, 文武王의 陰祐를 빌어 해소코자 했다. 순조로운 날씨, 五事(貌·言·視·聽·思)의 무사함, 풍년, 無病, 의식풍족, 平安, 泰平함이 후손에게 내리어 多福하기를 기원하는 祭文의 내용은 왕의 간절한 소망이었으며 만파식적 설화는 이의 실현에 대한 기대의 표출이라 볼 수 있다.

海龍이 된 文武王과 三十三天의 一子가 된 金庾信의 출현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삼국통일이란 대업을 완성한 二聖의 능력과 현신, 협동의 자세도 귀감이 되거니와 羨望의 대상이었던 二人이 등장됨으로 비현실적 세계의 현실적 인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뿐더러 운명적 연결성에 민감한 당시에 이들의 운명적 연맥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 金庾信은 文武王 13년(673년), 文武王은 21년(681년)의 同月 同日인 7월 1일에 殞命했다. 이처럼 忌日이 同一한 것은 운명론적 관심을 끌 만한 일이었으며 더구나 文武王의 경우엔 死後의 陰助에 대한 예시가 명백히 드러나 있다.

5) 三國史記, 卷第八 神文王, 九年…秋閏九月二十六日 辛獐山城

6) 上揭書, 九年…王欲移都達句伐 未果

7) 三國史記, 卷第八, 神文王.

大王御國二十一年 以永隆二年辛巳崩 遺詔葬於東海中大巖上 王平時常謂 智義法師  
曰 朕身後願爲護國大龍 崇奉佛法 守護邦家 法師曰 龍爲畜 報何 王曰 我厭世間榮  
華久矣 若龍報爲畜 則雅合朕懷矣<sup>8)</sup>

동해 大巖에 葬하기를 遺詔하였으며 平素 智義法師에 죽어서 護國大龍이 되  
어 佛法을 숭상하고 나라를 수호하겠다고 다짐했으며, 또 세상 영화에 실증난지  
오래되었고 비록 용같이 거친 짐승이 되더라도 나라에 보답할 수 있다면 그것  
이 자신의 소원임을 밝힌 바 있어 만파식적에서 化龍된 것과 부합된다. 아몽든  
二聖의 憂國愛의 강한 의욕은 無價之寶인 守城之寶를 바치려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B) 王喜 以其月七日 駕幸利見臺 望其山 遣使審之 山勢如龜頭 上有一竿竹 畫  
爲二 夜合一(一云 山亦晝夜開合如竹) 使來奏之 王御感恩寺宿

神文王은 海官 朴夙淸의 보고와 日官 金春質의 해석을 들은 뒤 7일째 되던 날  
利見臺에 駕幸한다. 여기서 7일이 소요된 것은 日官의 해석지연이라 보기 어려  
우니 그렇다면 靈物을 찾기 위해 邪俗된 마음을 정화할 시간의 필요가 아니라  
면 吉日을 기다렸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어땀든 왕의 근신적 자세를 볼 수 있  
다. 또한 留宿장소를 文武王의 化身인 龍이 出入했던 感恩寺로 택한 것도 聖祐  
를 기대하는 의미를 지닌다. 浮山의 산세가 龜頭와 같다고 인식하였는데 龜나  
竹은 神·聖으로 통하면서 竹이 畫爲二 夜合一했다는 것이 매우 暗示性을 보인  
다. 둘이 하나로 합치는 것은 文武왕과 김유신의 陰助가 一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면 祖靈과 神文王의 정신적 일체감, 三國의 統一성취, 무력통일에 따른  
반발세력의 포용등 여러 차원에서 인식될 수 있지만 결국 융합과 결속의 실현  
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영적 능력은 誕生이나 성취에 있어 심각한 난관의 극복  
과 동시에 신비성의 발현을 통해 확인된다.

(C) 明日午時 竹合爲一 天地震動 風雨晦暗七日.

8) 三國遺事, 卷第二 文虎王法敏.

8일 정오에 대가 合一하면서 異蹟이 일어난다. 낮엔 爲二하는데 이날은 合一하는 異變을 보이면서 天地가 진동하고 풍우가 晦暗하여 새로운 生成을 위한 진통을 예시한다. 이러한 변고는 무려 7일간이나 지속되는 데도 왕은 전혀 당혹감을 갖지 않는다. 그런데 7의 의미는 운명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은가 한다. 金庾信과 文武王이 모두 7월 1일에 죽었는데 신문왕은 7월 7일에 卽位했고 海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지 7일만에 왕이 해변에 駕幸하였으며 竹이 合一하면서 일어난 日怪도 7일간 지속된다. 이처럼 7은 운명적 의미성을 보여주고 있다. 日怪가 끝난 뒤 神物을 얻는 과정은 16일에 발생되고 있다.

(D) 至其月十六日 風霧波平 王泛海入其山 有龍奉黑玉帶來獻 迎接共坐 問曰 此山與竹 或判或合如何 龍曰 此如一手拍之無聲 二手拍有聲 此竹之爲物 合之然後有聲 聖王以聲理天下之瑞也 王取此竹 作笛吹之 天下和平 今王考爲海中大龍 庾信復爲天神 二聖同心 出此無價大寶 今我獻之 王驚喜 以五色錦彩金玉酬賽之 勅使斫竹出海時 山與龍忽隱不現 王宿感恩寺.

이날 풍파가 그쳤기에 王이 海中의 浮山에 들어가니 龍이 黑玉帶를 바쳤다. 그런데 王은 玉帶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말이 없이 山과 竹이 갈라졌다 합쳤다 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묻고 있다. 용은 두 손으로 쳐야 소리가 나듯 대도 합해야 소리가 남을 들어 笛을 만들어 불면 天下가 화평해질 것임을 알린다. 둘이 합쳐져야 소리가 된다는 것은 海中大龍이 된 문무왕과 天神이 된 김유신이 同心하여 이 無價大寶를 내어 바치게 했다는 것과 연관된다. 王은 黑玉帶와 竹을 받을 때 龍으로부터 신비성에 대한 해석도 수용하는데 玉帶보다 竹의 기능에 대한 靈性이 강조되고 있다. 以聲理天下之瑞에서 聲은 피리소리로 和氣로운 정신을 뜻한다. 왕이 五色錦彩와 金玉으로 사례하고 使者로 하여금 竹을 베어가지고 나오자 山과 龍이 홀연히 없어졌다고 한다. 여기서 왕이 물건으로 사례한 것은 용에 대한 현실성을 높여주고 있다. 더구나 인간들에게 선망받는 비단이나 金玉으로 答禮하고 있는데서 용과 인간의 만남이 좀더 현실성을 증대시켜 주고 있음을 본다.

(E) 十七日 到祇林寺西溪邊 留駕畫餅 太子理恭(卽孝昭大王) 守闕 聞此事 走馬來賀 徐察奏曰 此玉帶諸窠皆眞龍也 王曰 汝何知之 太子曰 摘一窠沈水示之 乃摘左邊第二窠沈溪 卽成龍上天 其地成淵 因號龍淵 鶴還 以其竹作笛 藏於月城天尊庫 吹此笛 則兵退病愈 旱雨雨晴 風定波平 號萬波息笛 稱爲國寶.

여기서는 太子 理恭의 神通한 능력이 강조되고 있는데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太子가 祇林寺 西溪까지 말을 타고 와서 옥대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쪽이 모두 眞龍임을 알아보았는데 王이 의심을 갖자 그 쪽을 물에 넣어 眞龍임을 입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는 太子가 탄생되기 이전이다. 원래 王은 太子 때 金欽突女를 妃로 맞았지만 즉위할 때까지 無子였고 즉위한 해에 金欽突의 모반이 있자 妃를 출궁시켰으며, 王 3년(683)에 金欽運의 女(神穆王后)를 맞아 드렸다.

三年春二月 以順和爲中待納一吉滄金欽運少女爲夫人 先差伊滄 文穎 波珍滄 三光定期 以大阿滄智常納采 … 五月七日 遣伊滄文穎愷元抵其宅 冊爲夫人 其日卯時 遣波珍滄大常孫文 阿滄坐耶 吉叔等 各與妻娘及梁沙梁二部媼各三十人 迎來夫人 乘車左右待從官人及娘媼甚盛 至王宮北門 下車入內 …

七年 春二月 元子生 是日 陰沈昧暗大雷電

十一年 春三月一日 封王子理洪爲太子<sup>9)</sup>

王 3년 2월 부인을 맞아드리기 위해 먼저 文穎 三光을 보내 기일을 정하고 智常을 시켜 納采케 했으며 5월 7일엔 文穎 愷元을 그 집에 보내 夫人을 책봉하고 그날 卯時에 大常 孫文, 坐耶, 吉叔을 시켜 妻娘과 及梁, 沙梁, 二部の 婦人 각 30인을 데리고 부인을 맞을 때 매우 성대했다. 그리고 元子が 出生한 것은 7년 2월이요, 太子로 책봉한 것이 11년 3월이었다. 그렇다면 王 2년은 아직 太子가 태어나기 전이며 王 10년으로 본다면 겨우 4세이긴 하지만 太子로 책봉되기 1년전 이기에 그래도 무리는 따르나 탄생도 되기 전으로 시기를 잡는 것보다는 훨씬 타

9) 三國史記, 卷第八, 神文王條.

당성을 지닌다. 여하튼 태자가 諸窠가 眞龍임을 알아 보았다는 것은 태자의 신비한 능력을 과장하여 설화화한 것으로 龍淵의 유래담까지 부연하였더라도 설득력이 없다.

神物の 靈的 신비성에 있어 玉帶는 태자의 통찰력을 부각시킨 것외엔 입증되지 않으며 笛의 경우에만 강조되고 있다. 竹笛의 증험은 兵退病愈 旱雨雨晴 風定波平에서 나타나고 있기에 萬波息笛라 명명하고 天尊庫에 보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파식적의 영성은 전란 질병 기후 풍파 등 온갖 재난을 극복하는 神物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태자 孝昭王과 연관해 볼 때 확고한 왕권의 강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F) 至孝昭大王代 天授四年癸巳 因夫禮郎生還之異 更封號曰萬萬波波息笛.

만파식적은 신문왕때 취득되었으나 정작 효험이 입증된 것은 효소왕 2년(893년)이다. 栢栗寺 佛이 夫禮郎을 구해오기까지의 異蹟에 의하면 大玄薩滄의 子 夫禮郎이 國仙이었는데 그 무리에 安常도 속해 있었던 바 이해 3월에 北溟에 갔다가 이들이 적에게 잡히게 된 것도 만파식적이 없어졌기에 일어난 것이다. 夫禮郎의 부모가 栢栗寺 大悲像前에 기도를 드렸더니 잃었던 琴笛과 함께 잡혀간 夫禮郎과 安常이 불상 뒤에 와 있었다. 이에 크게 놀란 부모가 그 경위를 묻자 이에 대한 대답을 통해 이적이 소개되고 있다.

郎曰 子自被掠爲彼國大都仇羅家之牧子 放牧於大烏羅尼野(一本作都仇家奴牧於大磨之野) 忽有一僧 容儀端正 手携琴笛來慰曰 憶桑梓乎 予不覺跪于前曰 眷戀君親 何論其極 僧曰 然則宜從我來 遂率至海孺 又與安常會 乃批笛爲兩分 與二人 各乘一隻 自乘其琴 泛泛歸來 俄然至此矣<sup>10)</sup>

大都仇羅집에서 牧子가 되어 大烏羅尼들에서 放牧하고 있는데 용모가 단정한 중이 琴과 笛을 가지고 와 고향생각이 나느냐고 묻기에 不知中에 꿇어앉으며 왕과 부모를 그리워한다 하니 해변가로 데려 가 安常과 만났고 笛을 둘로 쪼개

10)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 第四 栢栗寺.

어 하나씩 탈 때 그는 쥘을 타고서 잠깐만에 돌아왔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러한 異蹟은 곧 왕에게 보고되었으며 왕의 부름에 의해 夫禮郎은 쥘과 笛을 가지고 謁안에 들어가니 왕은 크게 기뻐하여 백률사에 푸짐한 상을 내리게 된다. 그런 뒤 愷성의 출현도 琴笛의 홀대에 있음을 알고 神笛을 萬萬波波息笛이라 封했더니 愷성이 없어졌으며 이러한 靈異한 일은 뒤에도 자주 발생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일연은 이 글의 말미에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즉 安常을 俊永郎의 徒라 하나 자세치 않으며 永郎의 徒에 眞才, 繁完의 이름이 알려져 있으나 愷아릴 수 없다고 하여 설화적 허구에 지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근심을 기적으로 해소시켜 주어 封爵까지 부여한 神物이 실제로 확인될 근거가 없고 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夫禮郎 귀환의 이적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데서 萬波息笛에 관련된 설화의 배경은 모든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神物의 보유와 이를 의지하여 왕실의 안녕을 도모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음으로써 효소왕의 통치기반의 구축과 왕실의 권위를 강조코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 III. 萬波息笛의 의미성

이 설화가 기록된 것은 고려 후기의 일이니 설화가 형성되어 구전되는 과정에 수정, 변질, 윤색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가령 感恩寺申記중 文武王欲鎮倭兵란 기록이 만파식적의 필요성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당시 왜구의 침탈이 당면한 현실적 고민이 아니었음을 상기할 때 후세에 전승과정에서 변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설화의 지역적 배경인 감포읍에 전승되고 있는 구전설화를 보면<sup>1)</sup> 대왕암과 관련된 설화가 주로 倭人의 寺鍾약탈행위와 관련하여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언급된 사건의 내용을 보면

A 어느 대왕이 휴양을 나왔다가 태풍을 만나 빠져 죽었는데 용이 되어 등천

1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口碑文學大系, 慶北 月城郡篇, 감포읍 설화.

해서 대왕암이라 했고 등천할 때 꼬리로 쳐서 타진 곳이 등바위이다(1. <대왕암과 용등바위> pp. 629~630).

B. 감은사의 큰 종을 왜적이 훔쳐가다가 대왕암에서 태풍과 벼락을 맞아 침몰되었다. 그래서 파도가 치면 종소리가 들린다(2. <대왕암 앞바다에 빠진 감은사의 종(1)> pp. 630~631)

C. 어른(文武王)과 만며느리(神文王妃)의 사이가 좋았는데 王이 임종시 용이 되어 동해 열두 섬과 울릉도를 치겠다고 했다. 며느리가 늘 명복을 빌자 대왕바위에 오면 불 것이라 현몽하였으며 가서 만나보니 큰 비늘이 달린 용이었다. 용이 된 왕이 동해 열두 섬을 친 뒤 울릉도를 치려 했으나 하늘의 만류로 중지했다(11. <감은사와 청산대(이건대)> pp. 639~642).

D. 감은사 종을 왜적이 떼어 배에 싣고 가는데 대로 만든 통수를 부니까 대왕바위 앞에서 침몰하여 파도만 쳐도 소리가 들린다. 왕이 왜적이 출몰하는 열두 섬을 쳤다(13. <문무왕의 수종릉과 득천> pp. 642~644).

E. 왕이 용이 되어 동해 열두 섬을 치고 울릉도를 치려다가 하늘이 수구맥이라 안된다고 하여 치지 못했다. 왕이 용이 되어 깊은 물속 바위밑으로 드나드는데 왜적이 인경을 떼어가다가 풍파를 만나 여기에 빠뜨려 소리가 났으나 오래 되어 흠에 묻혔는지 이젠 들리지 않는다(14. <감은사의 종과 문무왕의 득천> pp. 644~647).

F. 왜적이 열두 섬을 자주 침범하여 해를 끼치므로 왕이 죽은 뒤 용이 되어 이들을 치려 했으나 용이란 소리를 들어야만 용이 되는데 구렁이란 말만 들어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유금이란 아이가 용이라 하여 용이 되었으며 열두 섬을 치고 울릉도를 치려다가 수구맥이라 안된다는 용왕님의 말씀에 치지 못했다. 왕은 대왕앞에서 아들과 만나게 되었다(15. <문무왕의 득천> pp. 647~649).

G. 왕은 자기가 죽은지 7일만에 왜적이 침입하는 大小섬을 치고 득천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水葬 후 7일간 풍우와 벼락이 요란하다가 그치면서 득천했는 바

왕이 앉은 자리를 이견대라 했다(34. <대왕암과 이견대> pp. 718~719).

H. 바다에 풍랑이 7일간 계속되기에 왕이 가 보니 용의 머리인 섬이 있는데 나무가 밤엔 하나, 낮엔 둘이 되었다. 이를 베어 옥통소를 만들어 불면 풍랑과 파도가 종식된다고 했다. 나정리에 통소를 간직할 만파정을 지었으며 일반 파도를 종식하게 한다고 해서 만파식적이라 한다(35. <만파식적> pp. 720~721).

로 되어 있다. 이러한 설화들은 왜적의 침략이 강조되고 있는데 당시 왜적이 이 지역을 괴롭힌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므로 假想敵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적의 행위가 재물약탈이나 인명살상에 있지 않고 감은사종을 탈취하여 배에 싣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물속에 빠뜨렸다는데 집중되고 있다. 감은사종의 탈취실패는 化龍한 문무왕의 靈力을 암시하는 것으로 일기의 신비성에서 드러나고 水葬된 종의 울림으로 증거를 제시한다. 그런데 神物の 靈力을 입증하기 위해 왜구의 약탈미수를 假想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想定은 설화 A에서 王이 휴양 나왔다가 빠져죽었다는 현실적 접근의 시도를 위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에서도 유추될 수 있다.

삼국유사와 차이가 나는 구비설화의 내용을 보면 子婦의 성심으로 父王이 현몽되어 정말 용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고, 통소의 신비력으로 왜선이 침몰되고, 구렁이란 말만 들어 고민하다가 유금이로부터 용이란 말을 들은 뒤 登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왕이 죽은 뒤 7일만에 大小섬을 치고 등천한 점, 용의 머리인 섬에서 나무를 베어 만든 옥통소를 불어 풍랑이 종식되었으므로 모든 파도를 종식시킨다 해서 만파식적이라 했다는 말은 만파식적과 왕의 靈力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윤색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化龍한 용이 열두 섬을 치고 울릉도까지 정벌하려다가 하늘의 만류로 중지했다는 내용이 설화 C, D, E, F, G에 걸쳐 빈번이 나오는데 열두 섬은 대왕암 주변의 바위일 뿐이며 울릉도는 수구맥이기에 안된다는 하늘 또는 용왕님의 제지로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열두 섬의 토벌은 왜구침입의 거점제거에 있으나 울릉도 정벌은 목적성이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보다 앞선 異斯夫의 설화를 보기로 한다.

六年 春二月 王親定國內州郡縣 置悉直州 以異斯夫爲軍主……

十三年 夏六月 于山國歸服 歲以土宜爲貢 于山國 在溟州正東海島 或名鬱陵島 地方一百里 恃嶮不服 伊滄異斯夫爲何瑟羅州軍主 謂于山人愚悍 難以威來 可以計服 乃多造木偶獅子 分載戰船 抵其國海岸 誑告曰 汝若不服 則放此猛獸踏殺之 國人恐懼則降<sup>12)</sup>

異斯夫는 6년(505년)에 悉直州 軍主가 되었고 13년(512년)엔 何瑟羅州 軍主가 되었는데 우산국이 土宜(토산물)을 바치지 않자 토벌할 때 木偶獅子의 위엄을 빌어 항복을 받아 내었다. 이러한 설화에 대한 우산국의 대응설화는 매우 입체적이다. 우산국측의 설화에서는 신라군사가 이상한 짐승으로 섬사람을 몰살시켰다는 위협에 전의를 상실하고 항복했으며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기로 했다는 결말은 같으나 그 과정이 매우 자세하다. 于山國王 于海는 대마도에서 豊美女를 데려와 王后로 삼고 사치를 위해 신라를 약탈했기에 신라인들이 왕에게 토벌을 호소하여 우산국을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여 신라측의 조공불이행과는 달리 국가적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기에 자신들의 약탈에 대한 보복을 받게 된 것이지 예측적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신라측에서는 一次 정벌로 끝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우산국측은 一次 침략엔 신라측이 참패했으며 고배를 마셨기에 이사부가 再侵時엔 계략을 세우게 되었고, 또 이때 항복을 사전에 권유 받았으나 使者의 목을 베었으며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木獅子가 불을 뿜고 화살이 쏟아지기에 놀라 항복하였음을 밝혀 비겁하지 않고 떳떳한 패전이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sup>13)</sup> 이러한 설화를 통해 우산국측은 전쟁발생의 직접 동기가 왕비의 사치를 위해 침략했음에 있다하여 신라측의 조공불이행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더구나 신라측이 一次 敗退시켰다 하여 자신의 공지를 강조하고 있다. 南陽 포구에 있는 獅子바위, 獅子窟, 우산왕이 벗어던진 투구가 변한 투구바위등 증거물 제시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입증시키고자 한 의

12) 三國史記, 卷第四, 新羅本記 第四 智證麻立干.

13) 鬱陵郡誌, 傳說 2, 〈獅子바위〉 1989. pp. 379~380.

도로 보인다. 또한 울릉도의 설화에서도 왜구의 침탈에 관한 것이 거의 없음에도 문무왕이 왜구의 침략을 근절키 위해 울릉도를 정벌하려 했다면 이와는 다른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왕이 이견대에서 체험한 이적은 義湘大師가 洛山에서 체험한 것과 상통되는 점이 있다.

昔義湘法師 始自唐來還 聞大悲眞身住此海邊嶺內 故因名洛山 蓋西域寶陀洛伽山  
…齋戒七日 浮座具晨水上 龍天八部侍從 引入嶺內 參禮空中 出水精念珠一貫給之  
湘領受而退 東海龍亦獻如意寶珠一顆 師捧出更齋七日 乃見眞容 謂曰於座上山頂  
雙竹湧生 當其地作殿宜矣 師聞之出嶺 果有竹從地湧出<sup>14)</sup>

東海邊의 같은 배경에서 발생되면서 七日간에 걸친 齋戒의 근신생활과 四天王의 眷屬 八類의 귀신인 龍天八部侍從의 인도를 받으며 水精念珠를 얻고 東海龍으로부터 如意寶珠를 얻는 것은 玉帶와 竹을 얻는 것과 상통하고 座上山頂에 雙竹이 난 것도 浮山에 난 竹과 유사점이 있다. 이처럼 두 설화가 護國神物 취득과 佛寺창건 연유라는 엄연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 발상법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感恩寺에서 금당의 계단 밑에 동쪽을 향한 구멍이 있어 용이 절로 드나들게 하였다는 기록은 紅蓮庵 佛前 마루에 뚫린 구멍의 의미와 같은 발상이다.

化龍된 문무왕은 使者인 龍을 통해 玉帶와 竹을 주는데 이는 大悲(觀音)眞身이 龍天八部侍從과 東海龍을 통해 수정염주와 여의보주를 주는 것과 같으며 특히 竹은 神力을 실현하는 笛의 재료로, 그리고 雙竹가 난 곳이 佛堂의 영험이 발휘될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守城之寶라면서 정작 玉帶의 靈性이 나타나지 않고 다만 眞龍임을 투시한 太子의 능력만 강조되었음은 왕자의 권위에 대한 표상으로 인식되고, 竹笛은 兵退病愈 旱雨雨晴 風定波平의 기능을 내세웠으나 夫禮郎과 安常을 구원한 기적만 나타나 있을 뿐이어서 현실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祖靈의 陰助를 과시코자 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는 孝昭王의 왕권강화에 귀착되는 異蹟발생과 封爵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14) 三國遺事, 卷第四, 洛山 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 IV. 결 언

만파식적은 삼국통일의 숙원이 성취된 이후 절대적 왕권확립을 구축하며 잔여저항세력을 진압하여 평화와 안정을 성취코자 하는 기원에서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만파식적의 靈力을 통해 현실의 고민을 극복코자 했으나 사실과 상치되는 면도 있으니 이는 전승과정에서 고민의 해소에만 너무 집착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과 설화의 상치성을 검토함으로써 설화에서 추구하고자 한 의도를 진단할 수 있다.

위에서 논급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무왕 재임시 왜구침입 기록이 거의 없는데도 왕이 죽어 化龍하여 왜적퇴치를 열망한 것으로 강조된 것은 神物로서의 靈力을 가상의 적을 통해 입증기 위해 윤색되었다고 본다.

2. 설화의 발생시기는 신문왕 2년으로 보고 10년이라 함은 잘못이라 하였으나 그때는 출생이전이기에 오히려 附記된 10년이 타당하다. 9년에 왕이 월성군에 幸行하고 大邱로 도읍을 옮기려 했으며 五廟致祭의 祭文에 드러난 현실적 고민은 이 설화의 성립배경의 단서로 볼 수 있다.

3. 7년 왕자 탄생시 날씨가 어둡고 번개가 심한 것도 절대왕권 구축의 필요성을 높인다.

4. 7의 숫자는 운명적 암시성이 강하다. 7월의 사망과 즉위, 7일간의 대기끝에 神物の 얻음등은 운명적 암시성을 보여 준다.

5. 竹은 영력만을 강조하였고, 玉帶는 孝昭王의 비범성을 입증시킨다. 이를 守城之寶라 하였음은 태자의 왕권행사와 접맥된다. 효소왕때 부레랑과 안상을 귀환시키는 영력의 발휘는 효소왕의 왕권강화에 귀결된다.

6. 만파식적은 전승되면서 현실적 고민이 해결되는 영성의 강조를 위해 몇 가지의 부분적 윤색이 가미되었다.

24 江原民俗學 第7·8輯

7. 왕이 12섬을 정벌, 왜구를 제거한 것은 선왕의 陰祐를 확인함이다. 아울러 울릉도 정벌도 근거가 없고 이보다 앞서 異斯夫의 우산국정벌 설화는 신라측과 우산국측의 시각이 상당히 다르며 우산국측의 설화엔 자존심이 짙게 부각되어 있다.

8. 만파식적설화의 발상과 내용은 같은 동해안 지역설화인 洛山寺 연기설화와 유사성이 많다. 龍은 영물의 전달자로 보고 구슬을 神物로, 竹을 神聖物로 대응시키고 있으며 寺中の 穴을 통해 龍이 현실세계와 교류하는 장소로 인식하는 동질성을 보인다.